

#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성전

학개 2:1-9, 누가복음 12:29-32

최정웅 목사님

## [요약]

서론 :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

1.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이다.
2. 세워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성령의 역사, 만국을 진동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문과 모든 문이 열릴 것이다. 경제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결론 :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각인시켜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위에 손을 펴사 축복하옵소서. 은혜가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수 주간 말씀을 나누었다. 오늘로 마치고 다시 성경강해로 들어가려고 한다. 다음 주부터는 빌레몬서를 강해할 것이다. 오늘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포로시대에 성전 언약을 붙잡고 일어난 남은 자 램뉘트 몇 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성막을 지은 것처럼, 이들이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건축 운동이 평안하게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은 현상인데, 너무 가난하다. 가진 게 없고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방해해 했다. 지역에 사는 이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서 푹푹 못지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해서 반대한 것이다.

지금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과 똑같다.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 31왕이 다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도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고 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즉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원주민들의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다.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 원수였던 것처럼 원수지간이다. 이것을 풀 길이 없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니까, 백성들이 지쳐 버리게 되었다. 자기의 연합함과 한계가 크게 느껴지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이다. 이것이 학개서이다.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남은 백성 램뉘트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붙잡은 백성들을 통해서 현장과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되면 된다. 힘이 약하나 강하나 하는 것은 상관없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하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요, 또 사실인 것이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하고, 새 힘을 얻는 하루와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한다.

### 1.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적은 무리여도 상관없다.

(1) 학2:3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최고로 부유하고 강국일 때였다. 다윗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 놓았다.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지었으니 잘 할 수 있었다. 주변 나라 왕들이 와서 선물을 바치고 성전을 짓는 것을 돕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뭘 해 보려고 해 보니까 힘이 다 빠져 버리는 것이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보잘 것

없어 보인다.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낙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보잘 것 없고 좀 부족해 보여도,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첫 번째 조건은 속지 않는 것이다.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누가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실력이 뛰어나고 배경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막강한 바리새 교회를 쓰지 않았다. 로마 나라를 쓰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120명, 거지 수준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버리셨다. 광부의 아들 루터를 세워서 그 막강한 로마 천주교회를 개혁한 것이다. 걸 어다니는 병원이자 일컫던, 수십 가지 병을 앓고 있던 칼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칼뱅의 부인은 어머니 같은 분이였다. 30세 된 사람이 50세 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돌봐 준 것이다. 그랬으니 개혁운동을 할 수 있었다. 거의 병자였으니까 그 도움이 없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설교할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 긴 장대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앉아서 조는 사람을 후려쳤다. (웃음) 영혼이 병들었다고 설교를 네 시간 씩 하면서 예화도 안 들고 딱딱하게 성경 강해만 했으니, 여러분 같았어도 다 잤을 것이다. 전부 언어맞아야 돼.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약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길을 보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중심에 하나님 계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2) 두 번째 조건이 있다. 학2:4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와와 같이하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하라.” ‘너희가 가난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이다. 여러분, 전 백성이 마음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정말로 부탁한다.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져라. 스룹바벨은 중직자라고 할 수 있다. 통치자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교역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백성은 램뉘트와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지도자, 제사장, 중직자, 온 백성은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스스로 견고히 서라. 믿음 위에 서라.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과 믿음에 맞게 여러분이 결집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핑계낼 것 없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려면 다 털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돈 없어서 장가 시집 못 보내는 것 아니지 않나? 짝이 없어서 그렇지. (웃음)

(3) 학2:5에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아무 것도 짐이 안 된다. 정말 사랑해 보셨는가? 사랑하면 아무 것도 짐이 안 된다. 다 주면서도 행복하다. 좋은 것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출애굽 때 일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고쳐가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40:8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와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고 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4)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다? 성전 건축 시작 전을 보면, 가나니 떠나지 않았다. 재단, 재앙, 방해꾼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학2:9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학2:8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경제와 학업과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주실 힘을 선교를 위해서 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참사랑교회를 꼭 축복하실 줄 믿는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전을 세울 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다. 학2:6-9의 말씀은 그 내용이다. ‘너희가 힘을 다하여 헌신해서 성전을 세울 때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이 전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1) 학2:6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천지와 만물을 진동시킬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헌당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100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겨 버린다. 행4장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행4:31에, 너무나 꺾박이 심해서, 사도들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한 것이다. “주여, 우리의 현실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꺾박하고 방해하고 이단 누명을 씌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살펴보자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손을 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행2장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그때부터 더 담대하게,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이상못 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역사가 성전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 학2:7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행2장에는 그 증거로 15개 나라가 진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3천여 명이 변화되면서, 15개 나라의 종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한 순서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 산업의 문, 삶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과 현장, 나라를 천명(天命)과 소명(召命)과 사명(使命)으로 맡겨 주셨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 세력을 과시해 보려고 이 전을 지은 것이 아니다. 정말 다른 소원이 없이, 전도하고 싶어서 성전을 세운 것 아닌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 센터로 성전을 세운 것이다.

나는 이런 성전을 세울 생각을 조금도 해 본 적이 없다. 사실은 300명 정원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그래서 300명이 들어가면 꼭 차는 예배당을 아파트 숲 속에 유럽식으로 예쁘장하게 세웠다. 나는 이런 건물을 땅을 준비해서 지을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보내서 지어 보라고 재촉을 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해 보자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반수가 줄었을 때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였다. 그때 이 땅과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돈도 쌓아놓고 이 건물을 지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20년 동안 전도훈련을 받은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도 선교에 올인 하도록 이 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는다. 여러분,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반드시 지역과 민족, 나라를 진동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4)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7월 후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 날, 그 때,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이다. 최경우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이다.” 전도를 지속하고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행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3천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졌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제를 허락하셨다. 행4장에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행11장에, 안디옥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천하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데, 안디옥교회는 본교회인 예루살렘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행18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의 대제벌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모든 이방 교회와 주의 사도들, 전도자들을 도울 만큼 재력있는 회사를 일으켰다. 우리가 부(富)를 얻으려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를 불신 세상에 빼앗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부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제 문을 여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는다.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나가느냐 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마음이 벌써 머리가 주는 마음이다. ‘내가 식주인이 되어서 저분을 따라가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내가 저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세계복음화를 할 것 아닌가. ‘돈도 없는데 왜 자꾸 기어어나가나?’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가만히 있어서는 세계복음화 할 길이 없다. 교역자 한 사람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저 이번 주에도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에도 우리 수녀부가 솔로몬 군도에 가 있다. 김동권 목사님도 거기에 가 있다. 전 세계에 문이 열리고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영혼이 보이는 한 우리는 갈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내내 교회 지키고 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신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5) 9월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백성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을 지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화로운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보니까, 이

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지금 세우고 있는 스톤비벨 성전, 즉 제2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이다.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다. 건물의 크고 작고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믿음이 문제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강대국 비벨론과 페르시아를 살렸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짓고 있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흠오실 때는, 이 소수민족을 통해서 그 강대국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세우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다른 성전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라는 말이다. 더구나 스톤비벨 성전은, 남은 자, 레비인들이 세운 성전이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본 사람들, 그 젊은 세대가 짓고 있는 성전이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걸로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분명히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 참사랑교회의 제3성전도 마찬가지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잡고 세운 성전이다. RUTC를 마음에 품고 모델로 짓기를 위해서 세운 성전이다. 우리가 형편이 되어서 지은 건물이 아니다. 이전의 성전과 다르다. 반드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 믿는다.

(6) 9월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했다. 우리가 헌당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전과 성전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란다. 그러면 현장과 영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단 소리를 해도,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지냈던 김경목 목사를 찾아가 본다.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찾아가 본다. 가니까 그러더라. “목사님,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위싱턴) 한마음교회를 가서 스타디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자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라 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같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교회를 사고, 어떻게 성장했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다 보게 된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런 증거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복음소식을 암송해라. 지교회를 세워라.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고 증언할 만큼 되어서, 집중전도신학원에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란다. 증거 있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곳이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이다.” 이번 한 주간,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다가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NIV 성경에서는,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줄 여러분이 정말 믿는가? 그러면 끝난 것이다. 다른 것은 볼 것 없다. King James Version에서는, ‘The Lord of hosts,’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여호와와는 누구신가?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 중의 주이며,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사업도 직장도 그렇게 하라. ‘아니, 겨우 80만 원 주면서 일하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주인인 것처럼 그 회사를 섬겨라. ‘나는 80만 원 짜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면, 여러분도 슈왈(Schwab : 케네디의 후계자)처럼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神樣)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불신앙을 결박하고 무너뜨리시기 바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마음 속에 각인시켜라.’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자녀요 제자요 전도자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킬 만큼 증거와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우리 성전을 통해서 최고로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뿌리를 좀 내려라.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세계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 교회로 견고히 서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성전 헌당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성전’을 주께로 말씀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만 제대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병자였던 칼뱅을 통해서 중세와 세계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시대가 바뀔 줄 믿사오니,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와 말씀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